



OKNA Newsletter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DECEMBER 13, 2016

WEBSITE: WWW.GKNA.ORG

EMAIL: OKNANURSE@GMAIL.COM

VOLUME 4

회장: 권모니카

President

수석부회장: 조명숙

Vice-president 1

캐서린조: 김영초

Vice president 2

사무총장: 안마리

Secretary General

총무: 김혜미

General Affairs

서기: 전영선

Secretary

재무부장: 박애랑

Treasure

봉사부장: 한제니

Outreach and Service manager

감사: 조상문

auditor 1

감사: 박선자

Auditor 2

발행인: 회장: 모니카권

편집인: 사무총장: 안마리,

총무: 김혜미

회장 초대어 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의료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에 준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고있는 즈음에 우리 한인간호사들의 주류사회 진출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Nursing Practice and Leadership" 을 위해 박차고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간호도 병원중심간호에서 예방간호로, 전인적인 팀간호로 전환되고있으며 간호사들의 역할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환자케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교육, 간호사 단독 케어, 예방교육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간호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와 건강과 안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간호사 자신들이 깨닫고 그에 따른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OKNA(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알려진 우리 한인간호사들의 정직성과 노련함 그리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에 서서 나아갈수 있도록 우리 한인간호사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미 중요 의료진의 자리에서 advance nursing practitioner 로서, 교육자로서, 또는 행정관으로 의료계 리더로서의 한몫을 하고 있는 일세들의 귀중한 자산을 우리 한인 1.5 세나 2 세들과 나누고 이끌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별어진 세대간의 차이를 좁히는 책임을 절감하여 이행사를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OKNA)는 20 개 지역에 산재해있는 각 지역간호협회와 힘을 합해서 선배들의 임상경험과 일터의 흔적들 그리고 본인만이 체험할 수있었던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워크샵이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첫단계가 바로 2월 "Professional Nursing Networking event " 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국인으로서 간호학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공부한 간호사들을 초청하여 서로 알게하고 네트워크 조성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적절한 기술습득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워크샵을 통해서 학교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면서 개개인이 독특하게 쌓아진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한인간호사들의 지도력을 키워서 세계 각국에서 한인간호지도자들이 간호계에 더욱더 영향력을 키울 수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우리는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우수한 간호기술과 리더쉽을 알리는데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Professional Nursing Networking Event

The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OKNA) cordially invites you to attend our networking event for Nursing Professionals on **February 17th and 18th, 2017**. By attending this event, not only will you have the chance to connect with successful Nursing leaders within the area, but hear firsthand experiences from these leaders of how they succeeded in the constant changing healthcare system. This event will also serve as a channel for those who would like to become mentors or mentees of nursing.

Instead of trying to decipher the constant changes of healthcare on your own, join us on February 17th and 18th, 2017, and hear from nurses that can help you understand these changes. In order to RSVP, register on **EventBrite** for free at the event URL is below

<https://www.eventbrite.com/e/okna-professional-nursing-networking-event-tickets-29081870658> (where people can go and register).

We hope to see you there!

Monica Kwon MSN,RN President of OKNA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각지역 간호협회 회장

- Arizona Korean Nurses Association
- 아리조나 한인간호사협회: 손성미
- Australia Korean Nurses Association
- 호주한인간호사협회-시드니: 김인자
- Global Korean Nurses Foundation
- 호주 멜번 한인간호사협회: 이윤근
- 국제한인간호재단: 홍외생
- Huston Korean Nurses Association
- 휴스톤 한인간호사협회: 김숙원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NCA
- 북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송귀원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CA
-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김혜자
-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
- 재미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전현숙
- www.knachicago.org
- Korean Nurses Association Sacramento
- 새크라멘토 한인간호협회: 장희숙
- New Engl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최화자
- Northern Texas Korean Nurses Association
- 북텍사스 한인간호사협회: 유성
- www.ntkna.org
- The Greater 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tion
- 대뉴욕 한인간호사협회: 조명숙
- http://www.nykna.org
- 사단/법인 재독한인간호협회: 윤행자
- Hawaii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하와이 한인간호사협회: 차유진
-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olorado
- 콜로라도한인간호사협회: 류은주



지난 독일행사를 뒤로하고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반세기 한인간호사 이민사는 한인사회 이민정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인간호계에서도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는 차세대 한인간호지도자 육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간호사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간호사들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차세대 한인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강화를 통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자긍심을 키우고 미래의 해외간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참과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번 행사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차세대 한인리더를 키우는 밑거름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척 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외한인간호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금을 기재하시고 체크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0, \$100, \$200, \$300, \$500, \$1,000, \$1,000 이상

Pay to OKNA.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Mail to PO Box 252, Artesia, CA 90702.

Sponsor Name: _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_

Address: _____

Email: _____ Phone#: _____

OKN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IRS and FTB have granted their tax-exempt status.

Contribution is tax deductible. (Federal Tax Id. No.: 47-1915578)

Colorado 한인 간호사협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2016년 10월 1일 콜로라도의 한인간호사협회가 20 번째 지역협회로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 졌다. 이날 20 여명의 콜로라도의 한인간호사들이 모여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전문 간호인으로 좀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동과 전세계 회원간의 친목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창립총회 및 기념행사를 하였다. 지역사회의 초청인사들이 참석하여 콜로라도 한인간호사 협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가

이어졌다. 창립총회를 마치고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다양한 음식으로 푸짐한 기념파티를 참빛교회에서 가졌다. 초대 회장으로 류은주, 부회장 김미숙, 총무 윤상선, 홍보부장 박숙희씨가 선출되어 임기년동안 봉사할것을 다짐했다.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간호사들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큰희망과 잠재적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새로운 또하나의 지역협회 탄생을 축하하며 재외 한인간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는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금 전달과 아울러 콜로라도 간호협회 탄생과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별(평생)회원

새크라멘토 장희숙 회장님께서
2016년 4분기 특별(평생)회원에
동참하셨습니다.

깊은 감사 드립니다

장희숙 Sacramento



UCSF - KHNA 2016

10월 3일에서 7일까지 UCSF 에서 한국병원간호협회 연수회가 열렸다.
마지막날 7일에는 Graduation Ceremony 가 Beautiful Lange Room in
the UCSF Kalmanovitz Library 에서 열렸다. 재외한인간호협회 Monica
Kwon 회장이 Keynote Speaker 로 "Nursing Leadership in 21st
Century" 라는 제목으로 발표 및 Graduation Ceremony 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한 한국간호사들은 새로운
병원정보교류 및 참석자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경험을 기질수 있었다고 했다. 옆 사진들은 참석하신
교수진과 병원간호단체사진이다.



지역협회소식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 협회

원로이신 임흥옥 선생님께서 2016년 대한민국 국민 목련장을 수상하셨다.
임흥옥 선생님께서는 한국전쟁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의 치료를 돕는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미국으로 이민후에도 동료 및 후배 간호사들의
정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고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하시는 등 우리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들의 귀감이 되었다.
간호임상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미국심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한지도자상도 수상하셨으며 미국 텍사스간호협회에서 뽑는 훌륭한 간호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대뉴욕 한인 간호사협회

최(정)송자이사장은 제 10회 세계한인의 날 정부가 수여하는 201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뉴욕일원 1300여 한인간호사들의
큰언니로 통하는 최이사장은 1981년에 창립된 재미동부지역 간호협회
1대 부회장직을 시작으로 뉴욕한인간호협회 7대, 8대 회장을 역임하며
무보험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활동 등에 앞장 서 왔다. 그의
1992년 내셔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 와 1994년 플러싱
호스피탈에서 주는 공로상도 수상하였다. Family Nurse Practitioner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후배들에게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하였으며 모교인
고대간호대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재외한인간호사회 미래 사업 계획

*2017년 2월 17-18
차세대 간호사 네트워크 및 세미나
Oxford Palace Hotel, LA CA

*2017년 10월 6일-7일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4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하와이 개최

*2018년 10월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5회 총회
및 학술대회 호주 개최

*2019년 6월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3차 대회
한국개최

*2020년 10월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6회 총회
및 학술대회 미주내 개최

*2021년 TBD
재외한인간호사회 제 7회 총회 및
학술대회 오스트리아 개최

위의 계획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세요!

김수지박사님

고별시-----제니 환

어디서 부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돌봄의 씨를.
어디서 부터 품고 오셨습니까
생명사랑의 열정을.
가난한 조국의 흙속에서
돌봄의 씨앗을 찾아내어
은 땅에 심으시고,
돌봄의 어머니가 되어
삶을 엮어 가신 선생님은
간호계의 별로서
우리들의 자랑이셨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뜻인
배움을 통한 생명사랑이
흘러흘러 거칠은 땅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적시며
열매맺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리없는
하얀 미소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지만
그 미소는 별이 되어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

심으신 씨는 돌봄나무가 되어
아프고 지친 이들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김 수지 선생님!
이제 그 귀한모습 다시 볼 수
없지만 삶에서 보여주신
그 돌봄을 통한 생명사랑정신을
기리며, 나누렵니다

그 귀한 정신이 흘러 흘러
메마른 땅을 적셔
생명의 땅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 수지 선생님!
이 땅에서 돌봄의 어머니로
거칠은땅 고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쉬십시오...
봉사부장 제니한 드림

새크라멘토 한인 간호사협회



10 월 22 일 간호협회 주최하에 제 24 회 한인 무료 건강검진을 20 여명의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으며 200 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 하였다. 의사, 약사, 간호사 및 약대생들이 봉사자로 복용중인 약 상담, 골다공증 측정, 발/전신 마사지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혈당, 혈압체크, 콜레스테롤 측정, 유방암 설명, 낙상위험도 측정/낙상방지법 교육과 메디칼/메디케어, 암환우를 위한 설명,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안내, 전기세 절약법, 가정폭력 예방, 미 대선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설명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독 한인 간호사협회

재독 한인간호협회 고문 하순연 전회장이 LA 를 방문하여 유분자이사장님과 모니카권 회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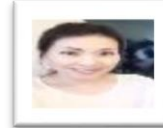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한인 간호사협회



Austria 간호협회 황병진 전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남가주를 방문차 왔다가 OKNA 임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아리조나 한인 간호사협회

손성미 새회장을 소개합니다.
임기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원소식



김수지 (평생회원) 박사님이 11 월 25 일 새벽 급성 백혈병으로 향년 75 세로 간호계에 큰업적을 남기시고 우리결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재외한인간호사협회의 평생회원으로 국내외 사회활동으로 많은 업적과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naver.me/IDhdn4jc>



(C 채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29 회에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이사장 을 소개 했다. 세월이 가도 더 품격있게 사역을 감당하는명품인생 소개합니다 <https://youtu.be/W05GxpLPJ4w>

각 지역협회소식을 주시면 정성껏 소식지에 올려드립니다. 전 지역의 회원들에게 소식을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